

2004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주의 회복은
하나님의 건축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하나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땅 위에 그분을 위한 거처를
건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은
오직 우리가 세상에서 구출되고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정화하는 일을 하고
신성한 진리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증거, 곧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분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도록
합당하게 진취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현충일 주말 특별 집회 개요
2004년 5월 28일-31일

전체 주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 요소들

메시지 1

하나님의 건축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하나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과 제단을 회복함

성경: 스 1:1-11, 3:1-2, 9-13, 마 16:18

I. 교회는 수십 세기의 역사를 거쳐 오며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따라 복원되어야 한다.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데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예표되었다—스 1:1-11, 참조 갈 6:16, 고전 10:6상.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된 데에서 회복하신 특별한 의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서 그분의 선민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스 1:2-5, 느 2:17.
- B.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신 특별한 의도는 이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지방에서 함께 모여 많은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왕국을 가지실 것이다—마 16:18, 엠 2:19-22, 롬 14:17, 행 1:8, 고전 1:2, 계 1:11.
- C. 이스라엘 자손의 남은 이들이 성전과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교회의 남은 이들을 오늘날의 분열과 혼돈에서 하나의 원래의 터로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신 것을 상징한다—계 17:1-6, 18:2, 4.
 - 1.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하나의 유일한 터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한다—신 12:5, 11-14, 시 133편, 계 1:11.
 - 2. 하나님의 백성은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그리스도,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한다—엡 3:8, 갈 3:14, 신 8:7-10, 골 1:12, 2:6-7.
 - 3. 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엡 4:11-16, 고전 3:9-17.
 - 4. 교회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국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이다—롬 14:17, 5:17, 참조 마 5:3, 8, 6:6, 14-15, 20-21, 7:13-14.
 - 5.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그분을 대표하는 한 단체적인 사람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원래의 의도를 이룬다—창 1:26.

II. 고레스의 영과,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의 인도자들의 영이 분발된 것(스 1:1-5)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사 45:15). 그분은 예루살렘에 그분의 집을 재건하시려는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홀어져 있는 가운데 압제받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셨다.

- A. 주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분발시키신 우리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건축하시기 위해 하늘에 속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워지시기 위한 기반이다—스 1:1, 5, 엡 2:22, 딤후 1:7-8, 4:22, 창 28:10-22, 요 1:51.
- B. 우리의 영이 분발되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나고, 올라가고, 가져가고, 건축할 것이다’ .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의 진정한 하나라고 하는 유일한 터로 가져가는 것을 예표한다—스 1:3, 5, 7, 11.
- III. 주의 회복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의 회복이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함과 하나가 있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만, 바벨론에 있는 것은 혼란과 분열이 있는 장소인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다—스 3:1, 요 4:24, 참조 고후 11:2-3, 계 3:14-16.
- IV.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여호수아로 대표된 제사장 직분과 스룹바벨로 대표된 왕의 직분이 필요하다—스 3:2, 5:1-2, 슥 4:7-10, 벰전 2:5, 9.
- A. 제사장 직분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며, 하나님께 점유되고 소유되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한다—참조 행 6:4.
- B. 왕의 직분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아래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골 1:13, 18하.
- V.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참된 헌신을 회복하는 것이다—스 3:2.
- A. 제단은 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며, 번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출 38:1.
1. 우리는 그분을 매일 아침 우리의 번제로 취해야 한다—레 6:12-13.
 2.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떠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반드시 제단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롬 12:1-2, 참조 창 12:8, 13:18.
- B. 하나님의 증거인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다락방’의 헌신이 필요하다. 주의 회복의 길을 취하는 것은 값진 헌신, 곧 나실인의 헌신을 요구한다—행 1:12-14, 계 3:18, 참조 민 6:1-8.
- VI.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기초를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의 진정한 터로 돌아왔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중심성이자 우주성이신 그리스도만을 관심한다—스 3:9-13, 고전 3:11, 1:9, 골 1:17하, 18하.
- VII. 주님의 유일한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어떤 혼합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순수하며 절대적이고 깨어 있어서, 세상과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세상이나 바벨론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스 4:1-5, 23-24, 계 2:12-13, 17:3-6.
- VIII.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들이 땅에 처음으로 모셔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그분은 그분의 백성 중 일부가 포로 상태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시다—미 5:2, 스 2:21, 느 7:26, 마 2:4-6, 1:12-13, 벰후 3:10-12.